

우리나라 산업보건사업의 발전에 대한 제언

동아대의대 교수 김 준 연



우리나라에서 산업보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960년대 초에 본인 역시 대한 산업보건협회 산하 부산경남지부 검진팀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돌이켜보면 황당하고 암울했던 시절이었다. 마치 시골 아주머니가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싼 값으로 다량의 생활필수품을 구매하여 동네 한복판에 물건 꾸러미를 해쳐놓고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을까! 3륜 화물차를 임대하여 거기에다 흉부 방사선 촬영기와 인체 계측기 등을 실어 사업장을 출입한 것이 예사였다. 소음 부-스도 미비하였고 제반 화학물질 분석장치는 엄두 밖이었다.

그러나 40여 년이 경과된 오늘날의 여건은 눈부시게 달라져 있다. 에어컨이 부착된 종합건강진단버스에서 자동화된 검진설비를 이용하여 양질의 산업보건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검진기관마다 우수한 검사실과 유능한 검사요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산업의학전문의들이 즐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의학의 미래에 대하여 서광은 커녕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후학들이 적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50년간 산업보건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 땅에 산업보건의 기본적인 터전은 닦아 놓았으니 다함께 노력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산업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 산업의학과 외래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폐나 소음성난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성질환은 산업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직업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진단과 치료, 혹은 관리(보상)가 산업보건체계와는 무관하게 되고 있다. 그 결과 산업의학 전문가 자신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은 물론 근로자나 사업주로부터는 불신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게끔 산업의학과 외래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외래운영의 기초적인 방법이 연구 개발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기존의 임상 영역에서 개발된 각종 진단도구의 적용과 활용 방법들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산업의학과 외래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유해요인의 폭로정도와 건강장애와의 관계규명, 건강영향에 대한 생체지표의 개발 등 새로운 진단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의학 진료상의 고유한 산재보험수가의 설정과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직업성질환 유소견자들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산업의학과만의 고유한 예방진료 서비스에 대한 수가 책정과 아울러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연계의 제도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관련 학회 및 기관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2. 연구사업의 신장

타 과와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환자관리체계 및 직업병 진단기술과 관리방법의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대학간 혹은 수련기관간 연구체계의 연계구축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국제학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적 공동 학술활동의 수행에도 노력해야 하며 특히 개입연구를 통한 직업성질환의 예방과 대책수립이 신장되기를 기대한다.

3. 세대간의 조화와 회원 상호간의 협조

산업의학을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들 산업의학 종사자들이다. 우리들 상호간에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서로 협조하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에 모 직업병 심의회의 석상에서 회원들간의 불미스런 작태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언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위 정규 산업의학전문의와 기존의 예방의학전문의 제도하에서 산업의학을 전공하였던 세대들간에 갈등이나 마찰의 소지는 없겠는가? 본인의 견해가 한갓 부질없는 망상이나 기우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상호간에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고 함께 힘을 합쳐 나가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뒤늦게 출발한 산업의학전문의 제도가 결코 사양되는 선례가 되어서도 아니 되겠지만 향후 산업의학전문의 제도 시행전에 논의되었던 예방의학의 “분과 전문의”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산업의학분야의 전산 정보망 구축

산업보건 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사업장, 건강진단기관 등 관련 기관 간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사업장에는 내부 인트라넷을 통하여 네트워크 운영체제를 갖추고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전산 정보망을 산업보건 전달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5. 적극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운용

직업병 정의의 범주가 갈수록 넓어지는 경향이 되고 있다. 작업조건이나 근무행태가 질병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경우는 물론 심지어 근로자들의 비뚤어진 생활양식에 의한 질병조차도 사정에 따라서는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보상혜택을 누리는 예도 있는 것 같다. 장차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비직업성 만성질환의 관리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관련 생활습관의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소위 “THP”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 일선에서 근로자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산업장 보건관리자들과 최신 의학지견에 대한 상호 학습의 기회를 자주 갖고, 행정 주무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해야 하리라 믿는다.

6. 통일 후 산업의학의 발전상 검토

남북통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여력이 있을 때 거기에 대비한 연구와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회경제학적 혹은 노동생산적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어지는 바 의학의 다른 어떠한 영역에 비하여 산업의학의 역할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의학 관련 조직간의 남북간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발전방향이 검토되고 개발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산업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으로 산업의학 전공의는 계속 줄고 있다. 시기를 놓치면 산업보건의 기틀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후학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 관계자 모두 함께 정진함으로써 산업의학의 밝은 미래를 창출합시다. **한민**